

기혼취업여성의 성분화적 노동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인지된 시간부족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I. 문제제기

인간의 삶은 시간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은 자신의 지위, 역할, 가치관에 근거하여 시간을 분배하고 배열하며 조직화한다. 즉 인간은 환경적 또는 내적 여건에 기반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주어진 시간을 구조화하며, 시간 구조화의 결과는 타인과의 삶과는 구별된 자신만의 사적 삶으로 형상화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시간은 개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로 주목되어 왔다.

시간부족인식은 기존의 시간사용 연구가 시간을 객관적 시각에서 조명한 것과 달리 시간에 관한 주관적 인식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시간부족은 초, 분, 시간의 단위로 구체화된 시간의 객관적 절대량에 관심을 두기보다 시간에 결부된 주관적 해석과 의미에 주목한다. 따라서 시간부족인식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주관적 사고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시간부족인식이 개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은 시간부족인식이 개인의 삶에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Robinson & Godbey, 1997).

기혼취업여성의 시간부족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시간사용의 양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 이들 여성의 시간부족을 분석하는 우회적 접근을 취해왔다(손문금, 2004). 사실 시간부족이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사용가능한 시간 사이의 차이에 근거한 주관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시간부족을, 사용한 시간의 총량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 접근한 선행연구의 한계는 간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에 따라, 최근 기혼취업여성의 시간부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고찰한 연구들이 제한적으로나마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기혼취

업여성들이 인식한 시간부족의 정도에 주목할 뿐 시간부족인식이 어떤 시간을 중심으로 경험되는지는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부족인식을 총체적 의미에서의 시간부족이 아닌 시간의 각 영역별 하위차원에서의 시간부족인식으로 세분화하여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은 주관성이 강조되는 심리적 개념이므로 객관성이 강한 외적 또는 환경적 변인만으로 시간부족인식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시간부족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총노동시간 등 제한된 환경적 변인만으로 시간부족인식을 설명하고자 했다. 따라서 시간부족인식의 고찰에 외적 환경적 요인만을 고려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내적 심리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에 따라, 본 연구는 기혼취업여성의 시간사용부족으로 인한 위기감을 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기감과 가사활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기감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의 시간부족위기감에 성분화적 노동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ABCX model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Hill의 ABCX model에 기초하고 있다. ABCX model은 스트레스나 위기와 같은 심리적 결과를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부산물로 설명한다(McCubbin & Patterson, 1983).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ABCX model은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A)는 발생한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인적 자원(B)과 발생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개인의 가치관 및 신념체계와(C)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결과(X)가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기혼취업여성에게 위기란 직장에서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과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고 가사일을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의 부족 또는 시간사이의 불균형이 야기한 심리적 긴장감, 무질서, 무능력을 의미한다. ABCX model은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사건 또는 상황의 결과를 개인의 자원 그리고 제시된 상황에 개인이 부여한 주관적 가치와의 상호작용의 부산물로 설명한다. 심리적 변화를 야기하는 사건 또는 상황(요인 A),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자원(요인 B), 그리고 야기된 상황에 부여한 주관적 의미(요인 C)의 세 요인은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상황이 자신에게 심리적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방어하도록 개인의 심리적 저

항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만일 개인이 존재하는 자원을 적절히 사용하고 부정적 상황을 다루기에 유리한 긍정적 가치를 부여한다면 부정적 경험이 개인의 위기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즉 ABCX model의 각 요인간의 상호작용의 형태에 따라 요인 x는 위기 또는 안정의 회복으로 나타난다.

2. 개념적 모형 및 연구문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임금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 가치요인으로 성분화적 노동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자원요인으로 월평균 휴일과 월평균 소득, 그리고 위기요인으로 시간부족위기감을 설정하였다. 요인간의 관계는, 스트레스 요인이 자원요인과 위기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자원요인은 위기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가치요인은 스트레스요인이 위기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한다고 가정하였다.

제시된 개념적 모형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성분화적 노동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기혼취업여성의 임금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기감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기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수립되었다.

1. 성분화적 전통적 가치관은 임금노동시간이 시간부족위기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한다.
 - 1-1 성분화적 전통적 가치관에 반대하는 여성은 임금노동에 사용한 시간이 많을수록 높은 정도의 임금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기감을 보인다.
 - 1-2 성분화적 전통적 가치관에 찬성하는 여성은 임금노동에 사용한 시간이 많을수록 임금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기감이 유의미한 정도로 높아지지 않는다.
2. 성분화적 전통적 가치관은 가사노동시간이 시간부족위기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한다.
 - 2-1 성분화적 전통적 가치관에 반대하는 여성은 가사노동에 사용한 시간이 많을수록 가사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기감이 유의미한 정도로 높아지지 않는다.
 - 2-2 성분화적 전통적 가치관에 찬성하는 여성은 가사노동에 사용한 시간이 많을수록 높은 정도의 가사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기감을 보인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사회조사의 2차 자료분석 연구로 설계되었다.

2. 분석변수 및 측정방법

◎ 시간부족위기감

시간부족위기감은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 임금노동시간

임금노동시간은 임금노동과 관련된 행동에 사용한 총시간으로 정의하였다.

◎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은 가정관리와 가족원의 보살핌 노동에 사용한 총시간으로 정의하였다.

◎ 성분화적 노동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성분화적 노동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은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 경제적 수준

경제적 수준은 월평균 소득을 통해 측정하였다.

◎ 미취학자녀유무

미취학자녀유무는 ‘미취학자녀가 있습니까?’의 질문을 통해 판단하였다.

◎ 월평균 휴일

월평균 휴일은 ‘정기적으로 쉬는 날은 며칠입니까?’의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3. 분석대상자

2004 생활시간조사 응답자중 기혼취업여성만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로 선정되었다. 7273명의 기혼취업여성중 임금노동과 가사노동 외에 기타 이유로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를 제외한 6511명의 자료가 최종분석되었다.

4. 분석방법

연구문제와 가설검증을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원인에 따라, 임금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험감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험감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으로 두 개의 중다회귀모형이 분석되었다. 구체적 모형과 모형별 분석대상자는 후술되었다.

임금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험감 분석모형

시간부족위험감 = $\alpha + \beta_1 \cdot \text{연령} + \beta_2 \cdot \text{미취학자녀없음} + \beta_3 \cdot \text{가사노동시간} + \beta_4 \cdot \text{경제적 수준} + \beta_5 \cdot \text{월평균 휴일} + \beta_6 \cdot \text{임금노동시간} + \beta_7 \cdot \text{성분화적 노동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 \beta_8 \cdot \text{임금노동시간} * \text{성분화적 노동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 e$

가사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험감 분석모형

시간부족위험감 = $\alpha + \beta_1 \cdot \text{연령} + \beta_2 \cdot \text{미취학자녀없음} + \beta_3 \cdot \text{임금노동시간} + \beta_4 \cdot \text{경제적 수준} + \beta_5 \cdot \text{월평균 휴일} + \beta_6 \cdot \text{가사노동시간} + \beta_7 \cdot \text{성분화적 노동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 \beta_8 \cdot \text{가사노동시간} * \text{성분화적 노동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 e$

IV. 연구결과

1. 임금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험감

임금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험감에 대한 중다회귀모형의 분석결과, 제시된 모형은 임금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험감의 13%를 설명하며 임금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험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beta=-0.00752$, $t=-7.61$), 임금노동시간($\beta=0.00053$, $t=3.99$), 월평균 소득($\beta=0.04151$, $t=5.16$), 월평균 휴일($\beta=-0.07998$, $t=-12.38$), 성분화적 노동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에 반대($\beta=-0.15016$, $t=-4.21$), 그리고 임금노동시간과 성분화적 노동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과의 상호작용효과($\beta=0.00017$, $t=1.98$)는 임금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기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노동시간과 성분화적 노동에 대한 가치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임금노동시간이 임금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기감에 미치는 영향이 성분화적 노동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에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 사이에서 다르게 작용함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성분화적 노동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에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에서 임금노동시간과 임금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기감과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성분화적 노동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에 반대하는 집단의 경우, 임금노동시간은 임금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기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에 반대하는 여성의 경우, 임금을 위해 일한 실제 임금노동시간이 많은 여성일수록 일 때문에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에 따라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성분화적 노동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에 찬성하는 여성의 경우, 임금노동시간은 임금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에 찬성하는 여성은 직장에서 또는 이와 관련해서 실제 노동한 시간과 여성이 일 때문에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유의미한 연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즉 여성이 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실제 일에 투자한 시간과는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설 1-2는 지지되었다.

2. 가사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기감

가사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기감의 중다회귀모형은 가사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기감의 2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beta=-0.01670$, $t=-15.19$), 미취학자녀유무($\beta=-0.19364$, $t=-5.31$), 임금노동시간($\beta=0.00064$, $t=9.10$), 가사노동시간($\beta=0.00062$, $t=2.22$), 월평균 소득($\beta=0.05223$, $t=5.24$), 월평균 휴일($\beta=-0.03698$, $t=-5.45$)은 가사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기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기감이 유의미하게 높으며, 연령

이 낮고, 미취학아동이 있고, 월평균 휴일이 낮을수록 가사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기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분화적 노동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과, 성분화적 노동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과 가사노동시간과의 상호작용 역시 가사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기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기각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Hill의 ABCX model을 이론적 근거로 ‘성분화적 노동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기혼취업여성의 임금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기감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기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연구문제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에 반대하는 여성의 경우 실제적인 임금노동시간이 많을 때 임금노동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에 찬성하는 여성의 경우 실제적인 임금노동시간이 많거나 혹은 적은 정도는 이들 여성이 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와 관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통적 가치관에 반대하는 여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임금노동을 당연히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일로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노동 행위와 시간부족위기감이라는 인식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이고 왜곡없이 평가하는 반면, 전통적 가치관에 찬성하는 여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임금노동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임금노동을 자신의 역할로 인정하는 수용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임금노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자신이 바쁜 이유를 자신의 역할이 아닌 임금노동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가사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위기감은 가사노동을 여성의 일이라고 수용하는가 또는 반대하는가의 가치관과는 무관하며 실제 가사노동에 투자한 시간에 의해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성분화적 노동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에 반대하는 여성들조차도 가사노동을 여성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거부하기보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일로 수용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대한 노동행위와 시간부족위기감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참 고 문 헌

- 김승권·송수진(2001).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생활시간 배분실태와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1, 1.
- 김희재(2003). “한국과 일본의 생활시간 비교” 『사회조사연구』, 18.
- 박수미, 선보영, 김진욱(2005). 『한국여성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손문금(2004). “맞벌이주부의 시간부족인식” 『여성연구』, 2, 67, 159-198.
- 손애리(2000).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 개발과정” 『조사연구』, 1, 1, 135-148.
- 이기영·이승미(199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 3.
-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생활시간사용과 시간갈등』 미간행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urr(1973). *Theory construction and the sociology of the family*. NY : Wiley.
- Hill, McCubbin, & Patterson(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In H. I. McCubbin (Eds). *Social Stress and the Family*, NY: The Haworth Press
- Hochschild, A., & A, Machung(1989). *Second Shift*, Viking
- Jacob, J., & K, Gerson(2001). *The time divide*, Harvard University Press
- Robinson, J., & G, Godbey(1997). *Time for lif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